

# 半夏白朮天麻湯과 그 變方으로 痰厥頭痛 재발 환자를 치료한 治驗例

서부일<sup>#\*</sup>

대구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A clinical study of Banhabaekchulcheonmatang(半夏白朮天麻湯) on a patient  
with headache due to retention of phlegm

Bu-il Seo<sup>#\*</sup>

Department of Herb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gu Hanny Universty.

## ABSTRACT

A headache due to retention of phlegm has vomiting, dizziness, nausea, etc. A headache due to retention of phlegm mainly was occurred by insufficiency of the spleen and stomach. Banhabaekchulcheonmatang(半夏白朮天麻湯) has effects of strengthening the spleen and reducing phlegm and calming the endopathic Wind and relieving fainting. I prescribed the Banhabaekchulcheonmatang(半夏白朮天麻湯) to a patient with headache due to retention of phlegm. After taking these medicines, the patient was cured.

**Keywords** : Banhabaekchulcheonmatang, 半夏白朮天麻湯, 痰厥頭痛, 偏頭痛, 痰飲頭痛

<sup>#\*</sup>제1저자, 교신저자 : 서부일, 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과 본초학교실

· Tel : 053-770-2246 · E-mail : jangsan@dhu.ac.kr

· 접수 : 2007년 04월 12일 · 수정 : 2007년 06월 20일 · 채택 : 2007년 06월 25일

## 서 론

痰厥頭痛은 濕痰이 厥逆 上升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痰이 逆上하여 上이 實해지므로 頭痛, 眩暈, 眼前色黑해지고, 눈을 뜨지 못하고, 눈을 뜨면 더욱 어지러워하고, 身體는 沈重하여 山과 같으며, 四肢가 冷하며, 嘔吐가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1).

半夏白朮天麻湯은 金元時代 李杲의 脾胃論에 처음 수록된 처방으로2), 半夏, 陳皮, 麥芽, 白朮, 神麩, 蒼朮, 人蔘, 黃芪, 天麻, 白茯苓, 澤瀉, 乾薑, 黃柏, 生薑으로 구성되어 있다. 半夏白朮天麻湯은 補氣하는 四君子湯, 痰을 치료하는 二陳湯, 溫中散寒하는 理中湯을 합한 처방에다가 胸滿을 염려하여 甘草를 없애고, 補氣를 증강할 목적으로 黃芪, 運脾去濕을 도와주기 위하여 蒼朮, 痰滯를 제거하기 위하여 神麩과 麥芽, 痰多水濕을 제거하기 위하여 澤瀉, 脾의 邪熱을 淸하고 寒熱을 平定하고자 黃柏, 頭目的 風을 散하고자 天麻를 加한 처방이다3).

이렇게 구성된 半夏白朮天麻湯은 많은 임상가들에 의하여 惡心, 嘔吐, 眩暈, 痰厥頭痛, 手足厥冷의 症候에 補氣健脾, 溫中去痰化飲, 定風止暈할 목적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능성 위장장애, 만성 위염, 위하수 등의 소화기 질환뿐만 아니라, 고혈압, 저혈압, 만성피로증후군 등의 질환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1,4).

그런데, 저자는 과거에 편두통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다시 두통이 재발하여 내원한 환자를 진단하여, 脾胃虛弱兼痰飲型 痰厥頭痛으로 辨證하였으며, 이 환자에게 半夏白朮天麻湯과 그 變方을 투여한 결과, 탁월한 효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증 례

### 1. 환자

서 ○○. 남자 36세

### 2. 주소증

眩暈, 頭痛, 惡心

### 3. 발병일

2002년 10월 1일

### 4. 과거력

환자는 1980년부터 1983년까지 발작성 眩暈,

嘔吐, 右側 後頭部 頭痛 등의 증상으로 2주 전후의 간격으로 계속 앓아 왔다. 이 때 발생하는 증세를 살펴보면, 갑자기 머리가 빙 돌면서 어지럽고 눈앞이 컴컴해지면서 시야가 계속 좁아져 들어오는 것 같아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어 누울 수밖에 없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 때 환자의 얼굴을 보면 너무나 창백해져서 발병상황을 알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일단 누워 있으면 30분 후부터 머리의 오른쪽 뒷부분이 아파 오기 시작하고, 환자는 계속 어지러우며 심하면 구토를 심하게 된다. 2시간 정도 지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머리는 오른쪽 뒷부분이 계속 칼로 찌르는 것과 빼끼는 것처럼 아프며, 하루 정도는 머리가 흔들릴 때마다 아파서 머리 주위를 묶어주면 다소 편안한 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증상이 발생한 후에는 환자는 공포감으로 몇 일은 활동을 못하게 된다. 또한 두통의 발생과 동시에 소화 흡수하는 脾胃, 小腸, 大腸의 기능이 점점 나빠져서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설사를 아주 자주할 만큼 건강 상태도 나빠졌다.

이러한 증상을 계속 앓아 오다가, 1983년 후반부에 종합병원 검진 후에 편두통임을 확진받게 되고 양약 치료 후에 다소 증세가 좋아 졌으나, 양약 두통제의 치료가 끝난 후에 약효가 떨어졌다고 생각되면 계속 재발하였다.

1986년 대학생이 된 후에는 경미한 두통이 계속 되기는 하였으나, 발작성으로 일어나는 심각한 증상은 없었으며 한의원에서 한방치료를 받았다. 환자의 건강 상태가 개선이 되면서 증상이 계속 없다가 1993년 상반기에 다시 발작성 통증이 있었다. 이 증세는 과거 어느 때 발생한 증상 보다 정도가 심하여 다시 한방 치료를 하게 되었으며, 약국에서 뇌영양제를 단기간 구입하여 복용하였다. 이때는 한번 앓고 난 후에는 다시 재발하지 않았다.

### 5. 가족력

특이 사항 없음

### 6. 현병력

#### 1) 두통에 관한 현병력

2002년 9월 25일 오후 4시경 환자가 일하는 중에 갑자기 어지럽고, 시야가 약간 어두워지는 감각이 3-4분 동안 지속되어 과거의 병이 재발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걱정되었으나, 다행히 그 상태에서 증상이 지속되지 않았다.

2002년 10월 1일 아침 5시 30분경에 일어나서 아침 신문을 보다가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어두워지면서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하였다. 증세가 계속되

어 과거의 병이 다시 재발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누워 있었으며, 계속 어지럽고, 이번에는 머리의 왼쪽이 아파 왔다. 다행히 토하지는 않았으며, 속이 약간 메스꺼운 정도로 지나갔으며, 1시간 30분후에는 정신이 맑아졌으며, 어두워졌던 시야도 돌아왔고, 머리도 맑아졌다. 그러나, 왼쪽 뒷머리 중앙부분의 뼈개지는 것과 같은 통증은 하루 내내 계속되었으며, 머리에 가벼운 흔들림이 가해져도 머리가 아파왔다.

## 2) 기타 환자의 호소증상

상기 환자는 평소 위장 기능이 매우 약한 환자로, 평상시에도 대변의 상태가 軟便이나 便溏인 경우가 많으며, 차가운 식품이나 고기류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편이다.

腹診을 한 결과, 腸鳴이 있으며, 배가 답답하고 위장이 활동하지 않는 답답한 기분을 자주 느낀다고 호소하였다.

脈象은 완만하게 뛰고 있었고, 힘을 많이 느낄 수 없는 상태였다.

## 7. 진단명

脾胃虛弱兼痰飲型的 痰厥頭痛

## 8. 치료경과

### 1) 약물치료 방법

半夏白朮天麻湯을 2劑(40첩; 20일분)를 연속 처방하여 환자는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복용하였다. 그 다음 半夏白朮天麻湯 變方을 1劑(20첩; 10일분) 투여하였다. 환자에게 투여된 半夏白朮天麻湯의 내용과 半夏白朮天麻湯 變方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半夏白朮天麻湯: 半夏 陳皮 麥芽 各 1錢半, 白朮 神麴(炒) 各 1錢, 蒼朮 人參 黃芪 天麻 白茯苓 澤瀉 各 5分, 乾薑 3分, 黃柏(酒洗) 2分, 生薑 5片

○ 半夏白朮天麻湯 變方: 半夏 陳皮 麥芽 各 1錢半, 白朮 神麴(炒) 人參 黃芪 各 1錢, 蒼朮 天麻 白茯苓 澤瀉 各 5分, 乾薑 3分, 黃柏(酒洗) 2分, 生薑 5片

### 2) 약물치료 경과

가. 半夏白朮天麻湯을 복용하는 기간 동안 頭痛眩暈의 발작 기미가 10월 20일까지 3-4회 정도 있었으나, 머리가 조금 멍하고 쭈시는 상태에서 진정되었으며, 그 후 별다른 증상은 없었다. 다만, 공부를 하거나 신경을 많이 쓰면 머리가 멍하거나 멍한 경우는 드물게 나타났다.

나. 2002년 12월 3일. 저녁 6시경. 형광등이 어두운 실내에 들어가는 순간 눈앞이 약간 어질하면서 잠시 어두워졌다가 마음을 편하게 먹었더니, 곧 괜찮아 졌다.

다. 2002년 12월 26일. 오전 10시경. 자동차를 주차하다가 햇볕이 옆에 주차해 둔 차에 반사된 것이 눈에 들어 와서 시야가 어둡게 가렸고, 곧 바로 건물안의 실내에 들어갔더니 약 40초 정도 간 시야가 어두워져서 머리가 멍해지면서 두통, 현훈이 오는 것 같다가 곧 괜찮아졌다.

### 3) 약물복용 완료 후

환자에게 문의한 결과, 2007년 3월 까지 頭痛, 眩暈의 증세는 발생하지 않았다.

## 고 찰

痰厥頭痛은 濕痰이 厥逆 上升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兩頰이 靑黃色을 띠며, 痰이 逆上하여 上이 實해지므로 頭痛, 眩暈, 眼前色黑해지고, 頭痛은 痰과 氣가 逆하여 膈中에 壅하여 頭上의 氣가 暢하지 못하므로 일어난 것으로 肩稜骨에서 天庭, 百會 부근으로 올라가며 심해지고, 눈을 뜨지 못하고, 눈을 뜨면 더욱 어지러워하고, 身體는 沈重하여 山과 같으며, 四肢가 冷하며, 嘔吐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1).

半夏白朮天麻湯은 健脾化飲하고 定風止暈하는 효능이 있어서 脾胃가 虛弱하여 痰厥하고 頭痛하되 頭部가 破裂할 듯 疼痛하며, 身重如山, 四肢厥冷, 嘔吐眩暈함을 다스리는 처방이다1). 本方은 평소부터 脾胃가 虛弱하여 胃內停水가 있을 때, 外感內傷을 받아, 그 水毒이 上逆하여 頭痛 眩暈하는 證, 다시 말해 痰厥頭痛을 치료하는 처방이다1).

半夏白朮天麻湯에 관한 실험적 연구로는 혈청지질의 감소작용5), 중추성 지통작용6), 진통효과7), 근이완효과6), 수면시간 연장효과6), 진정효과6,7), 鎮痙作用6), 장관이완효과6), 항암효과4)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임상연구 논문은 부족한 편이어서 저자가 임상 경험한 결과를 발표하고자 하였다.

저자가 치료한 환자는 1980년부터 발작성 眩暈, 嘔吐, 右側 後頭部 頭痛 등의 증상으로 2주 전후의 간격으로 계속 앓아 왔다가 양방 종합병원에서 편두통으로 진단받아 약물치료를 받았던 적도 있었으나, 양방치료로는 근본치료가 되지 않아서 한방치료를 통하여 어느 정도 치료를 완료한 상태였다. 그러다가, 환자의 건강 상태가 다시 나빠지면서 이 痰厥頭痛이 재발하게 되어 저자에게 치료를 받으러 왔으며, 진단해 본 결과 脾胃虛弱兼痰飲證으로 진단되어

半夏白朮天麻湯을 40일분 복용시켰고, 환자의 두통, 현훈 등 주소증이 다시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에는 半夏白朮天麻湯에서 人蔘과 黃芪의 용량을 증대하여脾胃의 虛弱을 좀 더 개선하면서 잔존하여 있는 痰飲의 邪氣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半夏白朮天麻湯의 變方을 복용시켰더니, 약을 복용하는 기간 중에 경미하게 痰厥頭痛이 발생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약물치료 후 별다른 두통의 증세를 나타내지 않고 完治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 요 약

痰厥頭痛의 재발로 치료를 의뢰한 환자에 대하여脾胃虛弱兼痰飲證으로 변증 진단한 다음 半夏白朮天麻湯 2劑(20일분)과 그 變方 1劑(10일분)을 투여한 결과 完治를 경험하였기에, 치료내용 및 그 경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1. 신재용. 방약합편해설. 서울:성보사. 1989:163-164.
2. 李杲. 東垣十種醫書. 臺北:五洲出版社. 1973:67, 75.
3. 윤길영. 東醫臨床方劑學. 서울:명보출판사. 1985:103, 569.
4. 백태현, 류봉하, 박동원, 류기원. 半夏白朮天麻湯과 半夏白朮天麻湯加味方の 항암효과와 면역반응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한방중앙학회지. 1995;1(1):141-163.
5. 김홍순. 반하백출천마탕이 고혈압 및 고지혈증에 미치는 영향. 서울.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6. 김락용. 반하백출천마탕이 진통, 진정, 진경효과에 미치는 영향. 서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7. 홍남두, 진중우, 송일병, 김남재. 생약복합제제의 약효연구(제14보). 반하백출천마탕이 진통 및 진정작용에 미치는 영향. 생약학회지. 1983;14(3):107-112.